

장태평 농식품부장관, 정부가 뭔가 해줄 준비가 돼 있는 지금 이 기회!!

-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과 용인 청계목장 동행취재 -

본회 지도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월 24일(토),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과 함께 용인 청계목장을 방문하여, FTA와 관련 현장농가의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낙농인과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태평 장관은 FTA가 낙농산업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고, 가능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 생산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생산자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에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가 뭔가 해줄 준비가 돼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새삼 강조했다.

이어, 이승호 회장을 비롯한 협회임원, 용인지역 농가 등 현장 농가 대표들은 FTA대책의 핵심은 생산자를 위한 대책이 되어야 하며, 표류 중인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선은 근본적인 틀을 바꿔나가야 하는 정부의 지가 중요하므로, 장관님이 낙농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시간을 20여분 초과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 농가들의 낙농산업 발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반영될지 열심히 한번 지켜 볼 일이다. ☺